18일 고진영이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열린 2021 시즌 최종전 LPGA 투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연습 라운드에서 호쾌한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고진영, 시즌 최다 톱10 '주인공'

## 12차례 진입…10만달러 보너스
## 2019년 이어 2회 연속 수상
## 올해의 선수·상금왕 타이틀 놓고
## LPGA 최종전 CME 우승 도전

여자골프 세계랭킹 2위 고진영(26)이 2021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선수 중 가장 많이 '톱10'에 진입해 10만 달러(약 1억1800만원)의 보너스를 받았다. 내친김에 LPGA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까지 노리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PGA 투어는 고진영이 이번 시즌 18개 대회에 참가해 12차례 톱10에 들어 2021시즌 '리더스 톱10'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18일(한국시간) 밝혔다.

10회씩 10위 내에 이름을 올린 리디아 고(뉴질랜드), 패티 타와타나낏(태국)을 제친 고진영은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엔 시상하지 않았다.

고진영은 LPGA 투어를 통해 "두 번 연속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 플레이를 계속해서 잘했다는 의미인데, 훌륭한 선수들이 아주 많은 가운데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랭킹과 LPGA 투어 2021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부문 등에서 선두 넬리 코다(미국)를 2위로 추격 중인 고진영은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각종 타이틀을 향한 마지막 경쟁을 펼친다.

고진영은 대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우승한다면 너무 좋을 것"이라며 "작년보다 상금이 더 많아져서 다른 선수들도 더 욕심을 내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고진영은 당시 우승 상금 110만 달러를 받아 시즌 상금왕에 올랐다. 올해는 우승 상금이 150만 달러로 늘었고, 고진영이 대회 2연패에 성공하면 3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한다.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CME 글로브 포인트 부문 1위인 고진영은 이 부문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노린다.

고진영은 "작년에 좋은 기억이 있고, CME글로브 포인트도 굉장히 높은 위치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신은 있다"며 "그래도 이번 주 대회는 똑같은 위치에서 경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현재 코다가 상금, 올해의 선수, 세계 랭킹 모두 1위고 고진영이 2위에서 추격 중이다.

고진영은 "이번 주 날씨가 안 좋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다 같은 조건"이라며 "작년에 좋은 기억을 살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코리안투어도 300야드 장타 시대 '활짝'

## 7명이 시즌 평균 300야드 넘겨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에도 비거리 300야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코리안투어에서 모두 7명이 시즌 평균 비거리 300야드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카 로렌 신(미국)이 308.469야드로 1위에 올랐고, '조선의 거포'라는 별명을 지닌 장승보(25)가 308.121야드로 뒤를 이었다.

김홍택(28), 김민준(31), 김태훈(36), 김한별(25), 김비오(31) 등이 300야드 클럽에 합류했다.

이번 시즌에는 300야드를 찍은 선수가 가장 많이 배출됐다.

지난해에는 6명이 300야드를 넘겼다. 2018년에는 5명이 300야드 장타자 대열에 올랐다.

코리안투어에서는 2017년까지 300야드 장타자는 가물에 콩 나듯 드문 존재였다.

2009년 김대현(33)이 303.682를 날려 코리안투어에서 처음 300야드를 돌파했으나 두 번째 300야드 장타자가 나오기까지는 2012년 김봉섭(38)이 309.087야드를 때릴 때까지 3년이 걸렸다.

이듬해 김태훈이 301.067야드로 장타왕에 올랐으나, 이후 5년 동안 300야드 장타 선수는 자취를 감췄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최근 3년 사이 코리안투어 선수들의 장타력은 눈에 띄게 늘어난 셈이다.

측정 장비와 정확도와 측정 방식 등이 개선된 효과도 있다지만 선수들의 몸집과 훈련, 그리고 경기 운영 등이 장타 선수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유러피언프로골프투어 등 해외 선진 투어를 경험한 선수들은 장타를 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비거리 늘리기에 정성을 쏟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코리안투어에서는 여전히 장타가 빼어난 성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300야드 클럽 7명 가운데 상금랭킹 10위 이내에 든 선수는 김한별과 김비오 둘뿐이다. 이번 시즌에 우승을 신고한 300야드 선수 역시 김한별과 김비오 두 명이다.

버거리 1, 2위 마이카 로렌 신과 장승보는 상금랭킹 70위까지 주는 시드도 지키지 못해 퀄리파잉 스쿨에 다시 나섰다.

PGA투어는 딴판이다.

2020-2021시즌에 61명이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 300야드를 넘겼다.

장타 1위 브라이슨 디섐보(미국)와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3위 캐머런 챔프(미국), 7위 더스틴 존슨(미국) 등은 PGA투어에서 최강자로 군림한다.

/연합뉴스

# '아시아모터스포츠 카니발' 즐기세요

## 20~21일 영암서 최종전…코로나 이후 첫 유관중 대회

2021년 모터스포츠 일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대회인 '2021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20~21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관중이 있는 상태로 열린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아시아지역 문화교류 및 국내 모터스포츠 세계화를 목표로 ㈜슈퍼레이스가 2014년부터 시작했다. 2019년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2년 만에 개최했다. ㈜슈퍼레이스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 대회인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국제 프로토타입(레이싱 전용차량)컵 코리아'가 함께 열린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삼성화재 6000, 금호 GT, 캐딜락 CT4, 코오롱 모터스 M 등 4개 종목으로 펼쳐진다. '국제 프로토타입컵 코리아'는 고성능 경주 전용차량이 참가하는 특별 경기로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6개국 선수가 출전한다.

특히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종전(7, 8라운드)이 20일과 21일 이틀간 더블라운드로 진행, 2021시즌 챔피언이 되기 위한 막판 순위 다툼이 벌어진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상위 클래스인 '삼성화재 6000'은 현재까지 6라운드가 치러지는 동안 2승을 거둔 선수가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겸(77점·아트라스BX 모터스포츠)이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로 노동기(73점·엑스타레이싱)와 이찬준(65점·로아르 레이싱)이 바짝 뒤쫓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관람객과 함께 하는 첫 번째 모터스포츠 행사로 피트 워크, 그리드 워크, 시즌 우승자 시상식 등 관람객 이벤트도 마련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및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 정부지침에 따른 허용기준을 갖춰야 입장할 수 있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카카오TV 등 온라인을 통해 모든 종목의 결승 경기를 시청할 수 있다. 삼성화재 6000, 금호 GT의 결승 경기는 채널A, 채널A 플러스, tvN SHOW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또한 게임 인터넷방송 후야(Huya)를 통해 중화권으로 중계 송출한다.

강상구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국내 유일 1등급 서킷을 보유한 전남은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를 지원하면서 모터스포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청 우슈 금 4·은 2·동1…전국대회 눈부신 활약

## 대한체육회장배서 두각

전남도청 우슈팀이 전국 우슈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전남도청 우슈팀은 최근 경북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우슈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윤웅진은 산타 남자일반부 -56kg급 준결승에서 최진호(영주시청)를 꺾고 결승에 올라 결승전에서 상대의 부상기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수는 -60kg급 준결승에서 변성지(충북개발공사)를 2-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 배진범(포항시청)도 같은 스코어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민규는 투로 남자일반부 태극권 동메달과 태극검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영준(전남도청)은 남권 은메달, 남도 은메달, 남곤에서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전남도청 장보근 우슈팀 감독은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많은 도움을 주신 전남도와 전남스포츠과학센터에 감사하다"며 " 전남우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 우슈팀 김민수(오른쪽)가 포항시청 배진범을 꺾고 우승을 확정짓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즐거운 문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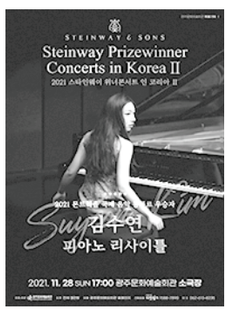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이터널스 |
| 2관 | 장르만 로맨스 |
| 3관 | 프렌치 디스패치, 강릉 |
| 4관 | 이터널스 |
| 5관 | 이터널스, 디어 에반 핸슨, 귀멸의 칼날: 남매의 연 |
| 6관 | 장르만 로맨스 |
| 9관 | 디어 에반 핸슨, 귀멸의 칼날: 남매의 연 |
| 7관 씨네커플 | 강릉, 후겟츠 웨슬리, 송해 1927, 아담스 패밀리 2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
| 8관 씨네커플 | 듄, 아담스 패밀리 2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일시 : 2021.11.25.(목)~27.(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특별기획공연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11.28.(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